

나주시, 전남 최초 모든 경로당에 안전손잡이 설치

경로당 610개소 대상, 화장실·출입문 벽면 등 손잡이 1900개 설치

화장실 미끄러짐 등 노인 안전사고 예방... 고령친화도시 조성 앞장

나주시는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 시설 내 미끄러짐·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고 3일 밝혔다.

나주시는 오는 7월 중순까지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 도내 최초 관내 전체 경로당 610개소 화장실과 출입문 벽면 등에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손잡이 설치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책사업으로 노

인 사고사망 원인 중 교통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낙상(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경로당 화장실 바닥 물기로 인해 노인들이 급히 들어가다 미끄러지면 뇌손상, 고관절·요추 골절 등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설 내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19일 안전손잡이 제품 생산 사

회와 협업을 통해 ‘㈜해피에이징’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달 초 손잡이 설치를 위한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해 수량 및 위치를 최종 확정했다.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는 안전손잡이는 목체 표면이 실리콘으로 제작돼 물 묻은 손으로 잡아도 미끄러지지 않고 기존 알루미늄 재질에 비해 겨울철에도 차갑지 않은 것이 장점이다.

또 손잡이 양단에 야광스티



커를 부착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 화장실, 출입문 벽면 등 위치에 따라 손잡이는 소

형, 대형, L자형으로 구성된다.

시는 이달 중순부터 7월 말까지 관내 경로당 610개소에 총 1900개(1개소 당 3~4개)의

안전손잡이를 설치·완료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마을경로당 시설이 대부분 20년 이상 노후화 하고 건축설계기준이 일반성인 기준으로 돼있어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걸맞게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이번 안전손잡이 설치와 같은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5548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22%를 차지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무장애도시 연구회, 관광지 환경 파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목표로 활동하는 여수시의

민덕희·김영규·주재현·나현수·강현태 의원 구성

이순신광장~돌산대교 도보 이동하며 개선사항 논의

회 무장애도시정책 연구회가 여수지역 관광지의 무장애 환경 파악에 나섰다.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에 따르면 무장애도시정책 연구회는 지난 2일 이순신광장에

등을 점검했다. 연구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휠체어와 유모차 등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꼼꼼하게 살피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인도와 도로의 높은 턱을 낮추고,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노면을 평평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무장애도시정책 연구회는 대표의원인 민덕희 의원과 김영규, 주재현, 나현수, 강현태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연구과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방안이다.

앞서 연구회는 지난달 19일 1박2일 일정으로 경기도 광주시 화답숲과 양평군 세미원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화답숲은 장애물 없는 관광자원 부문 한국관광의 별, 세미원은 열린관광지에 선정된 곳이다.

민덕희 의원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이동에 불편이 없는 환경이 무장애도시”라며 “무장애 환경이 미래 여수의 도시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연구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구례군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활동

마산면 복지기동대·4개 봉사단체 등 44명

구례군은 관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2일 펼쳤다고 밝혔다.

주거지 관할인 마산면 복지기동대를 중심으로 관내 자원봉사단체가 함께 취약계층 주택 수리와 청소 및 빨래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개선활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대

상으로 실시했다.

해당 가구는 낮은 지대에 위치하여 폭우와 습기에 취약했고, 보일러 고장 및 기름통 부식으로 취약한 난방상태를 겪고 있었다.

이에 마산면 복지기동대와 구례군 4개 봉사단체 등 44명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주택 개조 및 도배, 청소와 빨래

봉사를 실시했다. 구례군은 주택수리 재료를 제공했다.

이날 현장에 방문한 김순호 구례군수는 “제도적인 복지혜택의 범위를 벗어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힘써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따뜻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산림청-장애인고용공단, 산림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 협약

산림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4일 산림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산림분야 장애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고용 촉진을 위해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산림청과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

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도 참석했다.

이들 기관들은 장애인을 위한 적합 직무 발굴 및 직업훈련,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 개선 등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김윤호 기자



4일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왼쪽 네번째), 박종호 산림청장(왼쪽 다섯번째) 등이 산림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 협약을 맺고 있다.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